

## Beta Gamma Sigma

###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 4. 20th Student Leadership Forum (2014)

20090847 김한기

20091949 박종윤

#### 참가보고서 1

경영학과 20090847 김한기

전세계에서 AACSB 인증을 받은 경영대학의 Honor Society인 BGS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서강대학교 대표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Student Leadership Forum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환학생도 가지 않았고 외국을 여행 이외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처음이라 굉장히 기대되고 설렘이었던 것 같습니다. Student Leadership Forum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기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그리 높지 않은 Speaking 실력을 가지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100% 표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긴장도 되고 걱정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포럼에 참석하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졌고 제게 있어서 이 3박 4일의 Student Leadership Forum은 인생의 잊지 못할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포럼에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홍콩, 일본 등의 아시아권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가깝게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문화는 서로가 다 다르고 그 전까지는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Student Leadership Forum을 통해 Beta Gamma Sigma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첫 날에는 우선 Icebreaker를 통해 서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관심사를 물어보면서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Reception을 통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더욱 더 친해졌고 행사가 끝난 밤에는 샌안토니오의 명물은 Riverwalk에 같이 놀러 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오전에는 Teambuilding in Leadership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발판건너기 게임을 통해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때에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Ethical Leader에 대해 고뇌해보고 진정한 Ethical Leader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토론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교육 받으면서 느낀 점은 주입식 교육의 연속이다 보니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은 반면, 실생활과 연관시키거나 적용시키는 부분에서는 다소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Student Leadership Forum에서는 정답의 유무를 떠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실생활에 연관시키고 적용시키는 과정을 장려하고

## Beta Gamma Sigma

###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 발전시켜나가려는 태도를 길러주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은 다소 존재했지만 많은 것을 얻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과 더불어 여러 연사들의 Leadership Skill 관련 강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경영학도로서 모름지기 갖춰야 할 여러 소양에 관해 다시 한 번 자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녁시간에는 바비큐로 유명한 텍사스주의 특성을 살려 Ranch에 가서 바비큐를 먹고 재미있는 공연도 보고 춤도 추는 흥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일정이 끝난 후 밤에는 룸메이트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Pub에 가서 맥주 한 잔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아메리칸 타워에 올라가 샌안토니오의 야경도 구경하고 리버워크의 유람선도 타는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상품 증정시간과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고 헤어지기 전 기념촬영도 하고 연락처나 페이스북 계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을 참여하면서 여러 우수한 연사들의 강의와 토론토 유익했지만 역시 가장 유익했던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eta Gamma Sigma 회원이 세계 각지에 널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행을 가거나 회사에 입사한 후 출장을 가거나 할 때, 또는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친구가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설렘니다. 비록 3박 4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3박 4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회가 다시 저한테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학교의 Beta Gamma Sigma 회원들에게 이 Student Leadership Forum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여하라는 조언도 해주고 싶습니다.



## Beta Gamma Sigma

###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 Beta Gamma Sigma

###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 참가보고서 2

경영학과 20091949 박종윤

전세계의 우수 경영대 인증 AACSB소속 Honor society인 BGS 대표로 Student Leadership Forum에 참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공부하던 도중 포럼을 참가하기 위해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나 떨림 같은 것들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 기대에 없이 참가한 이 포럼에서 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고, 더 오래 있지 못하다는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미국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홍콩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말 다채롭고 색다른 모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BGS 대표 참가자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서로 정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MBTI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Ethical dilemma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우리나라들의 학생들에 비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적고 그 답이 맞던 틀리건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발판건너기 게임은 또한 서로의 Communication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몸소 느낄 수 있는 Activity였습니다. 더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세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너무 중요하지만 자칫 소홀이 여길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Beta Gamma Sigma

###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미국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미국학생들은 저학년때부터 여러 지 인턴십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학생들은 대개 저학년 때는 전혀 일을 해보지 않고 4학년이 되어서야 인턴을 하거나 심지어 인턴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공채로 입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어학점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단 현장에서 직접 뛰고 일을 배우려는 의지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저학년 때부터 많은 학생들에게 인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면 대학생들이 미리 자신의 업무적성, 진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더하여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하여도 손색이 없을 준비된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학기가 되도록 학점, 어학점수, 각종 자격증을 따는 명목으로 아직 한 번도 인턴십을 해보지 않은 저에 대한 반성의 계기도 되었습니다. 사실 BGS라는 단체가 어떤 구체적인 Goal이 있고 그것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지부에서도 한 학기에 한 번씩 표창을 수여하는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GS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동문들을 배출했고 포럼을 통해 BGS 멤버가 된다는 것의 다양한 혜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BGS 경영대에서는 BGS Alumni 대상으로는 GMAT을 요구하지 않고 MBA프로그램에 입학할 허용하고 Harvard Business Review 등의 여러 발간물에서도 BGS 멤버들에게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BGS에 가입하지만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너무 경시하여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포럼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아시아 등 세계 어딜가도 BGS SLF에서 만난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거나 외국에서 일하게 되어도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 관심이 친구들이 이곳에 놀러오게 된다면 한국의 명소 곳곳을 데려가 한국문화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게 되었습니다.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 Beta Gamma Sigma

###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Report

### The forum of 2015 Spring

20121906 최성주

Overall Review: 지난 방학 동안 가장 나를 기대하게 만들어준 베타 감마 시그마의 Student Leadership Forum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경험을 선물해준 고마운 행사였다. 총 63개의 대학교에서 참석한 121명의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대학교를 대표하여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된 행사에 참여하여 리더십을 배우려고 노력했으며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여 나를



포함한 한국 지부의 5명의 학생들 역시 최선을 다해 행사에 참여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낸 모든 학생들은 마지막 폐막식에서 너무나도 값진 경험을 공유하며 언젠간 자신만의 무대에서 서로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행사 개막식에서 사회자가 '여기 계신 모든 학생은 모두 선택되어 각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이기에 그 누구보다 해당 포럼의 취지에 걸맞은 교훈을 얻으리



라 예상한다' 라는 말처럼 모든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준비된 이벤트 하나 하나에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며 최대한 많은 배움을 얻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열정 때문에 세계 각 국의 대학교에서 모인 121명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배경, 문화 피부색과 같은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의 공통된 목표를 얻기 위해 협력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주변의 많은 다

른 한국의 대학생들의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경쟁에 지친 나에게 이 Student Leadership Forum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다. "다시 만날 때는 각자의 정상에서 서로를 격려할

##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수 있는 친구로써 만나자"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될 포럼의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Greetings: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작된 것은 2015 Student Leadership Forum 명부에 참석 확인 서명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서명 후 각자에게 지급된 물품을 받고 대강당으로 입장하여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책상에 둘러앉아 간단한 소개와 Ice-breaking 시간을 가졌다. 해당 코너의 진행자께서는 Beta Gamma Sigma의 Student Leadership Forum을 오랜 동안 진행해 오셨으며 그의 능숙한 진행 덕분에 서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친해 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진행자께서는 각 테이블의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시며 간단한 소개와 포부를 발표케 한 후 테이블에 구비된 종이들에 '훌륭한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적은 후, 그 종이들과 테이프, 가위와 같은 여러 도구들을 이용하여 집을 만들도록 시키셨다.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각 테이블만의 집을 완성하는 시간 동안 어느새



어색함은 없어지고 웃음과 함께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 비록 짧은 인사의 시간이었지만 세계 여러 대학의 학생들에게 서강대학교를 알리고 서로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Lectures: 3박 4일의 시간 동안 해당 포럼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모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모든 강의와 스케줄은 하나하나 학생들의 참여로 진행 될 수 있게 짜인 유익한 프로



##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그럼들이었기에 서로에게 의지하여 긍정적인 경쟁 속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카펫을 건너는 미션을 최단시간에 완료하라는 과제를 수행했던 강연시간은 현대 사회의 경영 리더들에게 요구가 되는 경영 윤리를 어렵지 않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먼저 121명의 학생을 크게 Red와 Blue 팀으로 나누어 다른 강의실에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각 Red와 Blue 팀 안에서 30명씩 제 1그룹과 2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간의 경쟁구도를 양상 하였다. 하지만 진행 교수님께서서는 “상대를 이기라”

가 아닌 “전원이 카펫에 숨어있는 지뢰를 피해 건너가라” 라는 요구를 하셨다. 결론적으로 게임의 승패는 Red와 Blue 팀 내의 그룹이 아닌 전체 Red멤버와 Blue멤버의 경쟁이었다. 각 그룹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빨리 진정한 경쟁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서로를 도우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승패의 갈림길 이었다. 이러한 경영윤리는 미래 세계 여러 곳의 리



더가 될 학생들에게 진정 유익한 경쟁은 zero sum과 같은 출혈경쟁이 아닌 각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긍정적인 경쟁이라는 교훈을 배운 시간이었다.

Events: Beta Gamma Sigma 의 Student Leadership Forum은 비단 딱딱하기만 한 강연의 연속이 아 아니었다. 매 점심과 저녁식사 에서는 멕시코와 이탈리아 음식을 포함한 미국에서 흔히 먹는 음식들이 뷔페식으로 제공되었으며, 둘째 날 저녁에는 포럼을 진행한 San Diego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Scavenger Hunt시간이 주워졌다. 평소에 알던 보물찾기와 달리 해당 포럼에서 진행된 scavenger hunt는 샌디에고의 전문적인 사업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잘 짜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었다. 약 4시간에 걸쳐서 학생



## Beta Gamma Sigma

###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들은 8그룹으로 나누어져 샌디에고 다운타운의 곳곳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였다. 콧수염있는 동상 사진찍기,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주점 방문하기, 밝은 옷 입은 여성과 기타치는 포즈로 3번 사진찍기, 마틴루터킹 거리에서 포즈취하기 등의 미션을 가장 빨리 완수한 1등과 2등 팀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었지만 아쉽게도 내가 속한 팀은 4등으로 완수하여 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4시간동안 다운타운을 같이 뛰어다니

우리 조의 팀원들과는 평소보다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Closure: 나는 이번 포럼에 참가하기 전까지 Beta Gamma Sigma에서는 서강대학교를 AACSB교육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 외에 다른 연관이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Beta Gamma Sigma 에서 매 학기 주최하는 Student Leadership Forum은 해당 포럼을 참여하는 한국의 학부생 들에게 세계의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고 유익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확실하다. 이번 포럼에 참가함으로써 나는 비단 경쟁이 치열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부디 다음에 참여하는 후배 서강대 학생 역시 인종과 문화를 넘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길에 더욱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교훈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

## Part II

---

20120746 고수현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12학번에 재학 중인 고수현이라고 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학교 및 학과에 대해 자랑할 점은 끝도 없지만 그 중 하나로 꼽으라면 Sogang Business School 이 AACSB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AACSB 는 미국 내 주요 경영대학장들이 1916년 설립한 비영리 인증기관으로 세계적 경영대학이 갖춰야 할 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시킨 경영대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서강대에서 저는 훌륭한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준 높은 수업들을 들으며 글로벌 시대의 인재로 성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인지 몰라도 Sogang University BGS Chapter 의 대표로 선발되어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하는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설렌 마음으로 참여했던 리더십 컨퍼런스는 제게 기대 이상의 교훈과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샌디에고에 도착했을 때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주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전체 컨퍼런스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습니다.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기대감에 부풀어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 도착하여 자기소개와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알아가고 친해졌습니다. 컨퍼런스는 올바른 리더십에서부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적인 방법까지 경영학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단순한 강의뿐만 아니라 게임과 같이 흥미로운 활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 교훈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만 배웠던 '죄수와 딜레마', 'Cooperation VS Competition' 등을 게임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체험하고 그에 대해 실재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리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조직 내 리더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효과적으로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MBTI 검사를 하고 난 후 비슷한 유형을 지닌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본 사이인데도 말이 잘 통하고 관심 있는 분야도 비슷해 성격 및 유형의 중요성 또한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 중 기억나는 것을 꼽으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연자의 열정적인 태도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연자는 단상에 올라서서 일방향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넓은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눈을 모두 마주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내용 또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자신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지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전지 한 장씩과 크레용이 주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어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 Beta Gamma Sigma

###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주어졌는데, 그린 그림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솔직히 다가가고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컨퍼런스 인만큼 다양한 생각과 문화가 공존했는데, 그 가운데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나의 생각 및 의견에 누구보다 큰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예전 교환학생 때도 느꼈던 점인데, 나의 주관을 지키는 것과 다른 의견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힘들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고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타감마시그마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베타감마시그마는 훌륭한 학생들이 모인 단체이며 그 안에 소속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단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제가 베타감마시그마에 속하게 되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나 해외 대학원 등 평생회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에 놀랐고 이러한 기회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서강대학교에 돌아와서도 베타감마시그마 회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며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 초 베타감마 시그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지원 및 참가에 도움을 주신 김이권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Beta Gamma Sigma

###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Report

